



그라비아 인쇄기업계



신 동 오

성안기계공업(주) 대표이사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0년 간의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안위와 타성은 급기야 IMF의 국면으로 전락했으며 그 간의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지속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상황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의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지난해의 성과분석과 반성으로 적어도 차기년도의 경기흐름이나 예상 매출을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영목표를 정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우리 상황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있었던 (사)한국포장협회 기계분과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 기계업체들의 대체적인 견해 역시 내년도는 아무런 목표나 좌표도 없이 파도 높은 망망대해를 편주로서 나침반도 없이 나아가야 할 형편이기에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 추석 이후로 급속히 냉각된 소비위축은 우리 포장업체의 매출감소로 직결됐고, 고유가로 나타난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어 조금씩 회복되어 오던 설비투자 마인드를 일순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미 국내 그라비아인쇄기 업체들도 과거 내수공급으로부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아졌으므로 해외 시장의 변화,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주변국들의 시장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 구조조정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의 고객들은 투자자금의 확보가 예년같지 않아 보이며, 수요대비 지난 몇 년간의 과잉투자로 경쟁으로 대다수의 포장업체들은 수익성을 상실한 반면, 고부가형 포장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아 물량 위주의 포장재 생산을 해오던 대형 포장업체들은 투자의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막연히 바랄 뿐이다. 반면에 우리와 비슷한 외환위기와 금융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 인접국가들도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IMF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능력의 부족으로 또다시 환율하락의 위기로 전락하고 있어 그 지역의 포장업체들도 내년도의 투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고객제일주의에 입각한 과감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끊임없는 내부합리화를 통해 가격의 혁신을 이루는 정공법은 이러한 위기 관리의 정도임을 믿는다. 지금 성안기계가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추진하고 있는 경영합리화, 국제적관리표준을 인증받은 ISO 인증, 고정관념을 해소할 만한 혁신적 신제품 개발추진, 시장 다변화에 따른 국지적 경제악화로부터의 해소 노력 등은 이 위기 탈출을 풀어내는 실마리임을 신뢰하며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ko